



두 가지 이름으로 두 개의 회사 이끌어온
부드럽고 매서운 기계공업 개척자의 울분과 걱정

몇 가지 삽화가 있다. IMF 때보다 심한 불경기라고 정의되는 2003년 10월 17일 삼성전자는 사상 최대의 매출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10월 25일 신입사원 모집원서를 마감한 한 회사의 입사경쟁률은 149대1을 기록했다. 10월 24일 주가가 사흘 연속 미끄러져 종합주가지수 748.17을 기록한 날 동양에레베이터는 상한가를 기록했다. 52주 기준 최저 4,350원이었던 주가가 7,670원을 기록했다. 증권거래소는 회사측에 주가급등 사유 조회공시 답변을 요청했다. 소액주주들의 운동에 힘입어 11억 달러의 외자유치에 성공한 하나로통신은 종전 경영권자였던 LG와 두루넷 인수 경쟁을 벌이겠다고 발표했다.

삽화라고는 했지만 알고 보면 살얼음판 같은 경제 사극의 현장이다.

37년 동안 동양에레베이터를 경영해 온 원종성 회장은 이런 삽화들 앞에서 자주 한숨을 쉰곤 한다. IMF를 겪을 때 건설회사가 줄줄이 부도나는 바람에 가만히 앉아서 회사 문을 닫기 직전까지 몰렸던 경험을 가지고 있는 탓이다. 그때로부터 불과 6년밖에 안 된 시기에 단군 이래 최고의 불경기라는 얘기가 들리지만 지금은 오히려 문 닫는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 새로이 문을 여는 작업을 하고 있다.

“얼마 전 대량의 동양에레베이터 지분을 독일 기업에 팔았습니다. 기계공업은 기술과 인력이 결합

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회사는 일본과 협력해 오늘의 동양에레베이터를 성장시켰는데 회사가 꾸준히 성장하다 보니 일본에서 기술제공에 소극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선택이 있는가. 우리는 훌륭한 인력을 가지고 있고, 독일은 훌륭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을 잡아야겠다고 결정한 것이죠. 외자유치가 IMF 이후 세계적인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는 지혜의 한 자락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현재 엘리베이터회사의 세계 순위는 1위 미국 오티스, 2위 스웨덴의 선들러, 3위 독일의 티센크루프로 매겨져 있는데 오티스는 LG와, 선들러는 중앙과 손을 잡고 국내에 진출해 있다. 국내 시장의 점유율은 오티스 LG가 50퍼센트, 동양과 현대가 20여 퍼센트 규모다. 그러니까 원 회장은 티센크루프를 국내에 진출시켜 세계 3대 엘리베이터 회사 간의 치열한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기업가치를 높이고 세계시장 진출에 대한 발판을 마련한다는 주사위를 던진 셈이다. 이런 과정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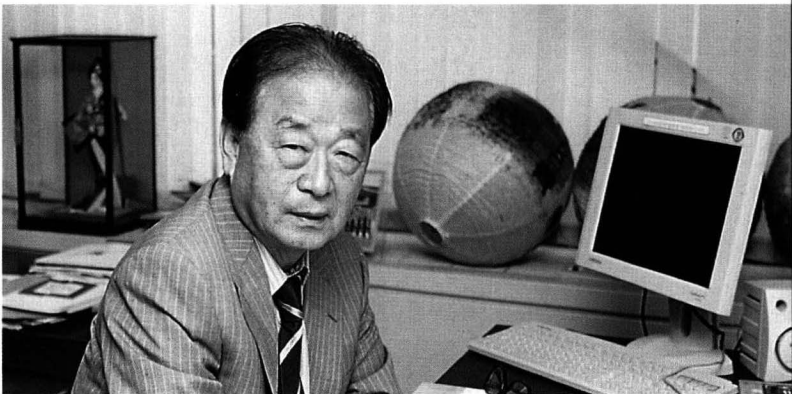
을 지켜보기 위해 원 회장은 자신이 티센크루프동양 엘리베이터의 회장직을 유지한 채 동양홀딩스라는 회사를 새로 설립해 제2의 사업영역을 개척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를 창출해 호의호식하는 게 아니라 고용공간을 마련하고, 노사 모두가 쾌지나 칭칭나내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기업인이자 문화인인 원종성 회장의 진가가 드러난다.

그는 사실, 두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다. 기업인으로서는 '원종목'을 쓰고, 에세이스트이자 월간 <에세이>의 주간으로는 필명 '원종성'을 쓴다. 게다가 《향산 종이에서는 향내 나고, 생선 산 종이에서는 비린내 난다》는 수필집이 베스트셀러가 돼 쓸쓸한 인세수입을 맛봤던 저자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 두 가지 이름이 별도의 기능을 하는 것은 아니다. 그는 기업경영의 노하우를 잡지 발행에 접목시켜 월간 <에세이>를 8만 부까지 발행해 본 경험이 있고, 지금도 5,6만 부를 발행하고 있다. 또한 잡지발행을 통해서도 기업이 이윤을 창출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를 실현시켜 보인 보기 드문 문화경영자로 손꼽힌다.

그가 문화경영자 의식을 기업에만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그는 월간 <에세이>를 창간할 때 판형을 파괴했다. 모든 잡지가 초중고등학교의 교과서 판형을 택하고 있었지만 그는 정사각형에 가까운 변형판을 선택한 것이다. 가뜩이나 책을 안 읽는데 교과서적 판형을 택하면 또 한 권의 교과서 판형을 보태는 것이나 진배없고, 결국 팔리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었다. 그의 예상은 적중했다. 월간 에세이는 단숨에 고급스러우면서도 잘 팔리는 잡지 반열에 들어섰다. 그 월간 <에세이>가 오는 12월호로 지령 200호를 맞으니 그의 판형 실험은 동양에레베이터 못지않게 성공한 셈이다.

“정통 보수 문예지가 고유의 영역을 지키듯 보수와 대중의 중간에 서서 독자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잡지도 있어야 하는 법입니다. 그래야 독자들이 기호에 따라 오갈 수 있는 것이지요. 정통 문예지를 보아야 제대로 된 독자라고 억압하는 문화가 형성되면 삶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문예지가 등장할 수 없지요. 누가 뭐래도 나는 그 점에서 자부심을 느낍니다. 월간



<에세이>가 그 역할을 했죠. 그 역할이 미진했다면 이 잡지가 어떻게 지금도 5,6만 부씩 팔려나가겠습니까. 그렇다고 월간 <에세이>의 필진이 약한 것은 아닙니다. 그분들이야말로 월간 <에세이>를 오늘까지 있게 해준 생산자들이며 한국문학의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어느 잡지와 비교해도 필진이 뒤지지 않습니다.”

책 얘기가 나오면 원 회장은 기업의 운명을 얘기할 때보다 훨씬 진지한 표정을 짓는다. 그 이면에는 문화 문화 하면서도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문화인들에 대한 불만도 쌓여 있고, 책을 사는데 주저하는 독자들에게 대한 불만도 쌓여 있다. 솔직히 얘

기해서 꼼꼼히 읽어야 할 책이 있고, 거실을 운택하게 빛내주는 장서용 책도 있을 수 있는데 사용할 줄도 모르는 전자제품은 몇 백만 원 주고 사면서 만 원도 안 되는 잡지나 책 한 권 사는 데는 주저주저하다가 그냥 돌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이다. 그러면 서 원 회장은 '나도 몇 페이지 안 본 책, 머리말도 안 본 책을 많이 가지고 있다'며 그렇다고 그 책들이 주인을 잘못 만났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 책들은 지금 읽히지 않은 것일 뿐 자신이 나이를 더 먹어 읽을 수도 있고, 자신의 후손들이 읽을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극단적으로 책이 있는 거실의 풍경을 보여주니 그것으로써 책의 일정 역할을 했지 않느냐. 그러니 책을 사는 데 주저하지 않는 문화 풍토를 만들자는 것이다. 이런 얘기 끝에 그는 '제발'이란 말을 몇 차례나 토해 내기도 했다.

그는 한편으로 문화생산자이기도 하다. 어엿한 에세이스트이기도 하지만 천안에 세계 최고인 157미터 높이의 엘리베이터 테스트타워를 세울 때는 그곳에서 숙식을 함께 하다가 불현듯 도자기 가마 앞으로 달려가 흙과 뿔굴기도 했다. 뭐, 기업인이 문화에 관심 있는 척 자신의 홍보 이미지를 높이려 했던 게 아니다. 일본을 비롯 여러 나라에서 비즈니스 손님이 오는데 도자기를 선물하러니 그 값이 너무 엄청나서 직접 구운 도자기를 선물하기로 작정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생활도자기와 예술도자기에 대한 구분이 약합니다. 이런 식이 되면 서민들은 평생 도자기 한 점 만져보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한국의 전통 문화가 대단하다고 하는데 서민이라고 해서 그 숨결을 느껴보지 못한다면 서글픈 노릇이지요. 이런 불만도 있고 해서 내가 직접 도자기를 구워 선물하겠다고 나섰지요. 기업 CEO가 직접 구운 도자기, 얼마나 의미 있습니까. 외국 손님들에게 내가 구운 도자기를 줬더니 감동하더군요. 그들과의 비즈니스, 아주 잘 됐습니다. 내 자랑 같지만, 이런 게 바로 기업인과 문화인이 갖춰야 할 역동성이자 창조적 발상이 아닌가 싶은데 내 마음대로 안 돼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그는 요즘 또 다른 구상을 하고 있다. 월간 <에세이>의 발행인을 창업 멤버인 이금량 이사에게 넘기고

자신은 편집인 겸 주간 직책을 맡는 역설적 구도를 택한 것은 '이제 월간 <에세이>가 스스로 걸어보라'는 독립정신에의 주문이고, 동양에레베이터의 지분을 넘겨 받은 자금으로 동양홀딩스를 설립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창업정신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인데, 어떤 업종을 택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책도 아니고 기계공업도 아니라는 대답만 돌아왔다. 그림에도 관심이 많은 것을 알고 화랑경영에 나설 것이냐고 물었지만 화랑운영은 자식에게 맡긴 처지이고 여기저기 사무실 차릴 건물을 알아보고 있는 중이라는 게 좀더 구체적인 대답의 전부였다.

"동양에레베이터가 한때 고급 엘리베이터 시장의 67퍼센트를 차지한 적도 있습니다. 일반 엘리베이터 역시 시장의 3.40퍼센트를 차지했고, 지금도 대그룹 계열의 경쟁회사들에 비해 밀리지 않습니다. 그게 운으로 뒀니까. 실력과 마인드가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옛날 얘기지만 나는 회사를 설립했던 초기에도 벤츠를 타고 다녔습니다. 그때만 해도 외제차를 타면 곱지 않은 눈길을 받았죠. 그러나 개의치 않았습니니다. 구린 데가 없는데, 기업경영에 보탬이 된다면 자신이 원하는 차를 타고 다닐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요즘도



아들에게 차를 한 대만 굴려라 이런 얘기 안 합니다. 다만, 여러 대의 차를 타는 사람은 그만큼 역할을 해야 하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게 사람의 도리이고, 경영자 정치인 문화인의 도리 아닙니까."

그는 기자가 '원 회장 같은 분이 출판분야에 좀더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야 출판산업이 발전하지 않겠냐'고 단행본 출판에 소극적인 이유를 묻자 "지금의 유통구조로 볼 때 아직 적극적으로 나설 때가 아닌 것 같다"고 손사래를 쳤다. 그것을 '언젠가는 뛰어든 테니 기다려보라'는 반어법으로 해석한 기자의 판단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일이다. **한**

취재 임동현 기자 · 사진 박신우 기자